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 실전 역량 총동원

산불이 요양시설과 교회로 번지고 LPG 가스 폭발로 이어지는 최악의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30일 정읍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29일 예행연습을 완료한 시는 15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전 대응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정읍노인복지요양원, 초대교회, 정읍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되며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제8098부대 3대대 등 15개 기관·단체 272명이 참여한다. 훈련의 목적은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훈련은 △산불 발생 △요양원·교회 화재 △위험물(LPG) 폭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재난안전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 운영 △수습·복구 단계까지, 재난 발생부터 대응 및 복구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가을 여행철 맞아 관광택시 50% 할인 이벤트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가을 여행철을 맞아 오는 11월 말까지 여행가는 가을·부안 관광택시 5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광택시 총요금의 50%를 군이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안 관광택시는 관광객이 목적지에 맞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예약형 맞춤형 교통서비스로 자가 차량이 없는 여행객이나 효율적인 동선을 원하는 관광객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관광지나 도보 중심의 변산마실길 등과 연계하여 이용이 가능해, 다양한 여행 형태에 적합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여행가는 가을' 할인 이벤트 기간에는 총요금의 50% 금액만 부담하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내 기술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구축

부안군, 현대자동차·현대건설 협력 RE100형 수소 생태계 구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9일 부안군청에서 전북자치도,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MW급 PEM(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배우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팔코 베르그 현대자동차 상무, 서유태 현대건설 상무,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1MW급 PEM 수전해 시스템을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향후 부안군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지역 내 수소모빌리티 및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RE100 기반의 분산형 수소생산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안군은 수전해 그린수소 수소산업의 중심지이자 국내 최초

지자체-민간 공동 기술 실증형 수소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협약은 국내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군이 수소를 직접 생산·활용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4년간 1300억 추가 재원 확보

국감서 건전재정 모범사례 조명

정읍시의 예산 절감 노력이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조명받았다. 정읍시는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도 4년간 13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추가 확보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건전재정 운영의 귀감으로 떠올랐다.

지난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정읍시의 재정 개혁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높이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과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서두를 때며 "최근 4년간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정읍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늘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정읍시는 2022년 535억원이던 기금을 2025년 1900여억 원까지 늘렸다.

그는 "정읍시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연도별로 예산을 절감하고 감액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며 구체적인 절감액을 공개했다.

정읍시는 △정원 조정 △설계비 집행 방식 변경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통해 2022년 6개월 만에 420억원을 절감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13억 원, 2024년 120억원, 2025년 228억원 등 민선 8기에만 총 8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다.

신 위원장은 "지자체가 이렇게 재정 절감 노력을 해서 신규 재원을 확보한

사례는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정읍시는 새로운 추가적인 재정에 대한 자기 자부담 능력을 키웠고 새로운 행정의 시범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소멸시대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사업이나 시설, 인력 등을 그대로 하면 위기 탈출을 못한다"면서 "인구소멸지역의 문제를 중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발상과 상상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읍시가 좋은 사례이고, 이런 사례가 확산되고 활용되도록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도 "정읍시의 예산절감 노력에 대해 잘 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지역 자원·현장 중심 적극행정... 새로운 성장축 마련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약용치유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28일,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칠보취수장 등 주요 현장 4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정읍형 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 추진 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융합한 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을 찾은 이학수 시장은 "전반적인 마감처리를 철저히 마무리해 완성도를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

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광장 인도와 접한 내대지' 방향으로 아외무대 위치를 조정해 지역 주민이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칠보취수장·신정정수장을 방문해 수질 관리를 강조했다. 칠보취수장에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상류 지역의 식당·카페 등 시설물에 대한 하수관리시설 설치·관리·감측 방안을 마련해 수질관리를 한층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지난 28일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주)피자앤컴퍼니(대표 한동호)와 고창 고구마를 활용한 피자개발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창 고구마, 피자로 즐기세요”

고창군-반올림피자, 고창농산물 활용 상생협약

고창군이 지난 28일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주)피자앤컴퍼니(대표 한동호)와 고창 고구마를 활용한 피자개발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고창의 대표 농산물인 고구마를 활용한 피자 개발과 출시가 이뤄진다.

또한 피자박스 등에 고창군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피자앤컴퍼니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반올림 피자는 자극적이지 않은 맛, 한국형 피자로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전국 매장 수 450여 개로 지역기업 상생 모델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군

은 고구마 주생산지로서 비옥한 황토에서 고구마가 재배되며 미세탈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고창군과 (주)피자앤컴퍼니는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쌀, 양파, 복분자 등 다양한 농산물공급을 추진한다. 피자박스 등에 고창군 문화·관광 명소를 디자인해 지역 홍보에 앞장선다.

또한 고창군 대표축제인 모양성제에 반올림피자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무료시식 등을 통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제7회 평생학습 한마당 31일 개최

부안군이 오는 31일 자연에너지파크 일원에서 제7회 부안군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한다.

'탐(寶)·탐(耽) 평생학습'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배움을 찾고 즐기며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부안의 정체성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군민이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AI·VR, 환경, 공예, 그림 등 26개 체험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성인문해 사회전과 사진·공예 작품 등 다양한 학습 성과도 전시한다.

또한 전북사민대학과 연계한 5개 대학 및 유관기관이 파트너로 참여해 부안형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확립한다.

또한 부안군 청우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 동아리, 관내 12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성과발표회를 통해 학습이 지역사회 활동으로 확장되는 선순환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배움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이라며 "세대 모두가 학습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이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자립형 평생학습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등 신기술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확대에 부안형 미래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보고 배우고 즐기며 함께 성장하는 부안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7회 부안군 평생학습 한마당은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체험·홍보·전시 프로그램, 성과발표회가 이어지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